

민주 부활...범여권 정계개편 주도

7·26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송파 갑 등 3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성북을을 행거 수도권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열린우리당은 예상대로 단 한 곳도 얻지 못했다. 정계개편의 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는 각 당 내부의 역학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수도권 교두보 확보...지역정당 명에 벗어 탄핵정당성 부여...與 친노-비노 대립격화 韓대표 독주 제동...한나라 내홍 휩싸일 듯

◇열린우리당= 지방선거 참패 이후 이뤄진 재·보궐 선거에서의 전패는 열린우리당의 현 주소를 확인시켜 줬다는 평가다. 특히 성북 을에서의 조순형 민주당 후보의 당선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논란까지 한동안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상체가 깊다는 진단이다.

물론 재·보궐 선거 전과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고 당내에서 '아직 답을 짚 시키는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당 탈당이나 분당 사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또 다시 확인된 여당의 무기력증은 심각한 내부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우선 당 내부에서의 '민주당과의 통합' 주장이 더욱 힘을 받으면서 정계개편 논의를 정기국회 후로 미루거나 한 지도부 방침이 크게 흔들릴 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 확보를 계기로 공공연히 정계개편 논의를 펼쳐 나가고 일부 호남 출신 의원들과의 물밑 접촉이 이뤄진다면 정기국회를 전후해 폭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김근태 의장 체제의 열린우리당에 지난 지방선거 직후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 책임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친노-비노 의원 간의 대립이 격화될 수도 있다.

◇민주당= 지난 총선 참패 이후 2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지방선거 승리에 이어 수도권 진출이라는 타이틀을 거머 쥔 민주당의 향후 행보는 거침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역정당'이라는 명에서 한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추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의

미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조순형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열린우리당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즉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당 밖의 정계개편의 광장으로 불러 모으는 한편, 멀찍이서 관망 자세를 보이고 있는 고건 전 총리도 현장으로 끌어 낸다는 것이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와 정대철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은 신당 창당의 공감대를 형성한 데다 여권의 대표적인 통합론자인 염동연 전 사무총장도 지난달 한 대표를 만나 '제3지대'에 대해 논의 했다는 사실은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의 주역 조순형 전 대표의 원내 복귀로 한화갑 체제의 민주당에 미묘한 갈등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대표의 독주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당내 외곽 세력들이 조 전 대표의 복귀를 계기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당초 4곳을 석권할 것으로 예견됐던 한나라당은 성북 을을 민주당에 빼앗김에 따라 지도부 책임론 등으로 상당한 갈등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북 을의 패배는 곧 "대세론에 저만해진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제섭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은 한동안 내홍이 예고되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 차기 대선 후보간 파워게임이 가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성북 을의 패배는 '수해골프' '호남비하발언' 등이 선거 패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당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정풍(淸風)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장상 대표 등 지도부와 당 관계자들이 26일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거방송을 지켜보다 조순형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표 지낸 원칙론자...노대통령 탄핵 주도

■ 조순형은 누구?

서울 성북 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순형 당선자는 구 민주당 대표를 지낸 조병욱 선생의 3남으로 지난 1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조 당선자는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에서 드러나듯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입바른 소리'를 해온 원칙론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과의 분당 이후 민주당 대표를 맡은 뒤 한나라

당과의 공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 이후 2004년 총선에서 '전국 정당화'를 내세워 자신의 지역구(강북 을) 대신 대구 수성 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특히 탄핵의 후폭풍으로 민주당이 몰락한 뒤 야인 생활을 하며 절치부심 계기의 기회를 노려왔다. 결국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7·26 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표를 던져 '탄핵 주역'이라는 눈총에도 불구하고 당선됐다.

조 당선자는 "나의 당선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계속되는 독선과 오만에 대한 심판이다. 또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탄핵에 참여한 16대 의원들의 명예회복과 정치적 복권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1935년 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1, 12, 14, 15, 16대 의원을 지냈다. 부인 김금지 여사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순형·추미애·한화갑 끌어안았어야”

천정배 전 법무장관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나 당에 복귀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26일 “조순형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의원을 열린우리당으로 데려오지 못한 것, 더 나아가 한화갑 민주당 대표를 끌어안지 못한 것이 이 정권의 한계였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은 7·26

재·보선 이후 정계개편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민주당에 대한 호의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돼 당복귀후 행보가 주목된다. 천 의원은 이날 법조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조 전 대표가 비록 보수적인 측면이 있으나, 나하고는 인격적으로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며

“민주당 시절 조 전 대표가 가장 아꼈던 후배가 나일 것”이라며 분당의 진통 과정에서 갈라지게 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당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김근태 의장에게 비상대권을 쥐서 당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김 의장이 리더십이 없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김 의장 중심’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일손 안 잡힌다” 전남도 뒤숭숭

민선 4기 전남도정이 의회와의 마찰 때문에 첫단추부터 잘 못 채워졌다. 당초 전남도는 26일 폐회된 제 21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원부서 축소와 경제부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후속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는 조직개편안 심의를 유보했다. 개원 첫 회기부터 집행부 의도대로 따라갈 수만은 없다는 견제시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오는 9월 5일개로 예정돼있는 도의회 정례회 때까지 조직개편안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난 전남도는 적잖이 당혹해하는 표정이다. 경제부서를 보강하는 조직개편안 통과와 함께 부단체장을 비롯해 대규모 인사 후 '잘사

다. 집행부의 기구가 개편될 경우 도의회 상임위 소관 부서 변경이 뒤따르게 돼있어 의원들의 반감도 커졌다.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의 '영역의식'을 간과한 탓이라는 풀이다. 도의원들은 26일 열린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집행부를 집중 성토했다. 5분 발언에 나선 윤시석 의원(민주·장성1)은 “해당 상임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통해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 '집행부 발목 잡기'로 몰아부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흥재(민주·순천2)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와의 사전 대화나 타협 없이 단체장의 독선·독주로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도의회 ‘조직개편안’ 유보 후유증 “조율 없는 과욕·독선이 갈등 불러”

는 전남'을 만들겠다는 박준영 지사의 민선 4기 포석은 당분간 구상단계에 머무를 수 밖에 없게 됐다.

도청 직원들도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인사가 유보된 상태에서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업무 차질도 예견된다. 더욱이 휴가철까지 겹쳐 직원들의 심리적 공백은 더욱 커 보인다. 전남도와 도의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빚은 조직개편안의 쟁점은 크게 3가지. 정무부처 업무조정과 행복마을과 신설, 경제과 학원경곡의 업무 분장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별정직 공무원 증원, 의회측과의 사전 조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전남도의 너무 앞선 의욕이 빚은 결과로 보고 있다. 즉 전남도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J프로젝트)이나 미래산업 기반 육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과제만을 의식한 나머지 공직사회 및 지방정치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여겼다는 지적이

“행정기구를 개편해야만 전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김종철 의장이 폐회사에서 밝힌 것 처럼 '도정현안 문제와 관련해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조율 없이 갈등을 빚고 행정의 난맥상을 가져온' 경우로 진단할 수 있다.

전남도는 도의회가 하루라도 빨리 임시회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처리해줄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초 마련한 개편안을 수정할 의사는 아직까지 없어 보인다. 도의회 역시 집행부 측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지 않은 한 조기에 임시회를 개최할 뜻이 없어 향후 의사 일정을 잡는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파문은 앞으로 전남도정이 과열을 없이 풀러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저변과 지방의회 속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박치경기자 unipark@ /정후식기자 who@